

경영자 인터뷰 / 공성통신전자(주)



정택주 사장

과학문명의 발달로 현대사회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HA기기 발달로 외출중에 전화 한통화로 가스렌지나 세탁기를 가동시킬 수 있고, OA기기 발달로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주고 있으며 FA화 진전으로 사람대신에 로봇들이 어려운 일들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조차 로봇에게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82년 공성통신전자(주)를 설립, 오늘에 이르러 Audio Headphone, 전자사전 등을 생산. 좋은 음울의 소리를 듣게 하며, 새로운 어학공부를 할 수 있는 첨단산업 업체중 모범적인 기업경영을 하시는 정택주 사장을 만났다.

정사장은 먼저 첨단산업의 생명인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인데 인간을 화합시키는 힘,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영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인의 전자도서시대를 선도한다

- 약력 : 1947년 생, 한국외국어대 졸, 공성산업(주) 이사 공성통신전자(주) 사장, 삼본정밀전자(주) 사장, 무역의 날 수출산업 동상 수상('90. 11)

것"이다며 인간의 이성과 감성의 조화에서 조직구성원의 인간애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나누는 경영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80년 정택주 사장은 시카고 전자쇼에서 Sony社가 Walkman을 처음 출품한 것을 보고 그 Walkman 소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웅장한 소리에 반했다고 한다. 당시 정사장은 섬유업체인 공성산업(주)에서 이사로 재직할때인데 이때 생각은 섬유산업이 사양사업임을 인식하고 전자산업부문에 관심을 두고 있는터에 마침 일본에서 Walkman Headphone을 생산해 볼 용의가 없느냐는 요구가 있었는데 공성산업(주) 재직시 외주하청을 하면서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점점 주문이 쇄도하면서 외주하청으로는 곤란해 아예 부가가치가 큰 Walkman Radio, Headphone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게 됐다고 창업배경을 설명해 준다.

"창업당시는 바이어들의 주문이 많았고 일 하는데 욕심이 많아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다며 지난날을 회고하는 정사장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편 정사장은 세계인의 전자도시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창사이래 한치의 오차도 허락치 않는 "최고의 완벽한" 기술을 추구해 왔으며 미국 Franklin Computer社와의 첨단설계 기술과 공성통신의 꿈같은 생산기술이 합하여 만들어

진 전자사전은 이미 250만대 이상이 생산, 수출되어 기술, 교육 분야에서 경이적인 터전을 마련했다고 한다.

또한 오늘의 세계에서 기술혁신이라는 동력의 획득여부가 기업이나 국가를 미래의 번영과 풍요의 대열에 동참시키느냐 낙오시키느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88년도에 부설연구소를 설립 미국 UCL의 박사를 소장으로 초빙하여 50명으로 구성된 짜임새 있고 알찬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일단의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창업이래 많은 상을 수상하였고 기업으로서도 큰 성장을 하여 '85년에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신용보증기금) 되고, 수출의 날 수출산업포장을 받았는데 "우리는 완벽한 최고를 추구하고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조직의 힘이 기업성장에 목표가 되어서 생산, 수출에 진력하다 보니 이러한 영광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또한 설립후 8년여 동안 100만불, 1000만불 탑을 수상 '90년 11월 또한번의 산업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90년도 수출액이 4,900만불로 5,000만불을 고지에 미치지 못한점이 사뭇 아쉬웠다고 한다.

대기업 보다도 특화된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82년 창업이래 기술력이 생명이라는 신념으로 선진기술을 익히고 신기술 개발에 매진, 첨

단기술 개발에 자신을 얻었고 앞으로도 첨단산업의 개척자 역할을 해 낼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해 보였다.

동사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말하는 전자사전 랭귀지 마스터는 좋은 싫든 영어와 접해야 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휴대용 전자사전은 Webster 단어에 대한 정확한 발음, 철자, 어의는 물론 동의어까지 전부 수록하고 있어 직장인과 수험생들에게 "즐기는 수험공부"라는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곧 시현될 Reading Machine이 있는데 각 나라마다 책을 읽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 통일화에는 각 나라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한다.

정사장은 혼자 등산하는 것을 좋아하며 "산에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말할 수 없는 것"이라며 본 기자에게도 산행을 자주 해 보라고 권유도 해준다

또한 정사장은 '일하는 것'을 취미라고 할 정도로 일 벌레로 정평이 나 있음을 직원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인지 이순옥 여사와 두딸과 함께 마주 앉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한다.

"기업은 일에서 보람을 찾고 그 일의 결과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고 가치있게 만드는 공동의 샘물이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고의 완벽"이 되겠다는 의지와 투혼으로 미래를 불태울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